

지소연 결승골 도움 맹활약...첼시 우승 이끌다

잉글랜드 여자 커뮤니티 실드
맨시티 2-0 꺾고 정상에
상대 선수 퇴장 유도하고
경기 최우수선수에도 선정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에서 활약하는 '한국 여자축구의 에이스' 지소연(29·첼시 위민)이 결승골을 도우며 팀의 커뮤니티 실드 첫 우승에 큰 힘을 보탤다.
첼시는 29일 오후(한국시간) 잉글랜드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무관중 경기로 열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020 잉글랜드축구협회(FA) 여자 커뮤니티 실드에서 2-0으로 승리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커뮤니티 실드는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지난 시즌 잉글랜드 정규리그와 FA컵 우승팀끼리 맞붙는 대회다.
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조기 종료하며 경기당 승점으로 우승팀을 가린 2019-2020시즌 잉글랜드 WSL에서 정상에 올랐다.
맨시티는 2018-2019시즌 여자 FA컵 우승팀 자

격으로 이번 커뮤니티 실드에 나섰다. 2019-2020 시즌 여자 FA컵은 코로나19 탓에 마무리하지 못해 아직 우승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디펜딩 챔피언인 맨시티가 나섰다.
2000년 시작한 여자 커뮤니티 실드는 2008년 이후 열리지 않다가 12년 만인 올해 다시 개최됐다.
첼시는 이날 승리로 처음 커뮤니티 실드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2004년부터 첼시 유니폼을 입고 활약 중인 지소연은 이날 풀타임을 뛰면서 팀 승리에 결정적인 구실을 해 경기 최우수선수 격인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됐다.
팽팽하던 승부는 지소연을 마크하던 맨시티 미드필더 질 스콧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첼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스콧은 전반 32분에 이어 후반 17분 지소연에게 무리하게 태클을 해 잇달아 옐로카드를 받고 경고 누적으로 물러나야 했다.
이후 후반 21분 균형을 무너졌다. 지소연도 한몫했다.
상대 미드필더 중앙에서 지소연이 내준 공을 수비수 밀리 브라이트가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포로 골문을 열었다.
리드를 지켜가던 첼시는 후반 46분 미드필더 에린 커스버트의 추가 골로 췌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29일 잉글랜드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20 잉글랜드축구협회(FA) 여자 커뮤니티 실드에서 첫 골을 어시스트한 지소연(가운데)이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아스널, 승부차기 끝 리버풀 꺾고 커뮤니티 실드 우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이 승부차기 끝에 리버풀을 꺾고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차지했다.
아스널은 30일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0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커뮤니티 실드에서 1-1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겨 우승했다.
커뮤니티 실드는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지난 시즌 EPL 정상에 오른 팀과 FA컵 우승팀이 단판 승

부를 벌이는 대회다.
2019-2020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경기에 나선 아스널은 2017년 이후 3년 만에 커뮤니티 실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통산 16번째다.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에 오른 리버풀 역시 통산 16번째 커뮤니티 실드 우승에 도전했으나, 2년 연속 승부차기에서 패배 아쉬움을 남겼다. 리버풀은 지난해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에 우승을 내줬다. /연합뉴스

'19세 캡틴' 이강인

프리시즌 친선경기서 주장 완장 차고 70분간 활약...새 시즌 기대감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는 미드필더 이강인(19·발렌시아)이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70분간 활약하며 새 시즌 기대감을 키웠다.
이강인은 30일 스페인 무르시아의 피나타르 아레나에서 열린 레반테와의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발렌시아의 주장으로 선발 출전해 후반 25분 마누 바예호와 교체될 때까지 70분을 뛰었다.
발렌시아는 레반테와 0-0으로 비겨 프리시즌 친선경기 무패(2승 1무)를 이어갔다.
이강인이 이날 발렌시아에서 처음 주장 임무를 맡은 것은 주전급 선수들이 대부분 빠진 영향이 크다.
전날 비야 레알과 경기(2-1 승)한 발렌시아는 레반테를 맞아 선발 라인업을 확보했다. 비야 레알전에서 후반 20분 교체 투입됐던 이강인과 함께 유스 출신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내세웠다.
골키퍼 아스파 실러선, 공격수 루벤 소브리노 등 베테랑들도 선발 출전했음에도 이강인에게 주장의 중책을 맡긴 것은 그에 대한 팀의 기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발렌시아 구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비록 친선경기였지만 19세 이강인이 처음 주장 완장을 차고 뛰



발렌시아 구단이 30일 홈페이지에 "비록 친선경기였지만 19세 이강인이 처음 주장 완장을 차고 뛰는 경험을 했다"면서 경기 결과와는 별도로 이강인의 활약상을 조명했다. /연합뉴스

는 경험을 했다"며 "이강인은 소브리노와 함께 공격 진영에서 활발히 움직였다. 페널티박스 밖에서 몇 차례 슈팅도 시도하고 자신감 있게 공을 소유했다. 그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상대에 악몽임을 입증했다. 수비에서도 그는 지지치 않았다"라고 이강인의 플레이를 호평했다.
2022년까지 발렌시아와 계약된 이강인은 지난 시즌이 끝나고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원하며 이적을 요청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역시 김연경...국내 복귀전 '팔팔' 흥국생명 김연경이 30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0 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 대회 개막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득점한 뒤 기뻐하고 있다. 흥국생명이 3-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꿀찌의 반란

한진, 3년만에 배구 컵대회 우승

팀 체질을 완전히 바꾼 한국전력이 '약체' 이미지를 깨고 프로배구 컵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국전력은 지난 29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0 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대한항공을 세트 스코어 3-2(25-18 19-25 25-20 23-25 20-18)로 꺾었다.
지난해 컵대회에서 3패로 예선 탈락하고, 2019-2020시즌 V리그 정규리그에서도 최하위에 그쳤던 한국전력은 이번 대회에서 반란을 일으키며 우승컵까지 손에 넣었다.
2016, 2017년 두 차례 컵대회에서 우승했던 한국전력은 3년 만에 다시 정상에 서며 구단 역사상 3번째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다. 한국전력은 상금 5000만원도 받았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한국전력은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라이트 박철우를 영입해 공격력을 강화했고, 레프트 이시문과 계약하며 수비 안정을 꾀했다.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는 미국 대표팀 출신 카일 러셀을 지명했다. 그리고 러셀에게 레프트를 맡겼다.
지난 시즌 가만 슈미트의 통역으로 일했던 안요한은 6년 만에 선수로 복귀해 센터를 맡았다.
부임 첫해 컵대회와 V리그에서 좌절을 맞은 장병철 감독은 2년 차 장신 세터 김명관을 주전 세터로 지목하며 달라진 한국전력의 엔진으로 장착했다.
이들은 컵대회 결승에서도 맹활약했다.
러셀(27점)과 박철우(24점)는 샹포르 측면 공격을 책임졌고, 이시문은 안정적 수비를 선보였다.
상대의 '서브 폭탄'을 견디며 주도 역할까지 한 러셀은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상금은 300만원이다.
안요한은 속공 성공률 100%를 찍었고, 김명관은 블로킹 득점을 5개나 했다. 김명관은 대회 라이징스타상(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불패 조코비치

웨스턴 & 서던오픈 우승...26연승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올해 출전한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조코비치는 3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웨스턴 & 서던오픈(총상금 422만2190달러)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밀로시 라오니치(30위·캐나다)를 2-1(1-6 6-3 6-4)로 제압했다.
올해 열린 경기에서 23전 전승, 지난해 11월 데이비스컵 3경기까지 더하면 최근 26연승 행진을 이어간 조코비치는 우승 상금 28만 5000달러(약 3억3000만원)를 받았다.
조코비치는 또 이번 우승으로 마스터스 1000시리즈 단식에서 35번째 정상에 올라 라파엘 나달(2위·스위스)이 보유한 마스터스 1000시리즈 단식 최다 우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마스터스 1000시리즈는 4대 메이저 대회 다음 등급에 해당하며 1년에 9개 대회가 열린다.
올해 앞서 나갔던 ATP컵과 호주오픈,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을 석권한 조코비치는 올해 출전한 4개 대회를 휩쓸었다.
함께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웨스턴 & 서던오픈(총상금 195만79달러) 결승에서는 오사카 나옴이(10위·일본)가 왼쪽 다리 부상으로 기권해 빅토리아 아저리카(59위·벨라루스)가 힘들이지 않고 우승했다. 아저리카의 우승 상금 역시 28만 5000달러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테넷
2관	테넷
3관	오케이 마담
4관	테넷,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5관	테넷, 빅사크3: 젤리몬스터 대소동
6관	테넷
9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7관 씨네커를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8관 씨네커를	오케이 마담,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반교: 디텐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제3회 GAC그라제 축제
연극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9. 2.(수)~3.(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제3회 GAC그라제 축제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9. 2.(수)~3.(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제3회 GAC그라제 축제
10센치 & 서사무엘콘서트
2020. 9. 5.(토)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